



건 ▲북한 의료 지원-통일부 지정 기부금 사업 보고 ▲네팔 의료 지원 관련과 하반기 사업안 보고와 국내, 해외, 북한 의료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북 의료장비 지원사업’으로 고영심 대표와 유니타스(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정세덕 신부, 김훈일 신부, 황정숙 수녀가 같이 참석하였다. 11월 27일 평가 보고회 실시를 공지 사항으로 알리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일본 성마리아병원 ‘신장이식팀’ 연수 실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본 협회의 회원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에서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신장이식팀’이 연수를 시행한다.

일본에서 이사장, 이식외과 교수 2명, 투석과 진료부장, 수술실 간호사, 이식병동 간호사, 통역 3명 외 열 명이 방문하게 된다. 7명은 1주일 동안 이식수술 및 외래 등을 연수할 것이며, 이사장님은 회원 병원 네 곳(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진행한 한일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신장이식 연수를 의뢰하면서 한국 내 장기이식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의 연수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신장이식은 2015년 6월, ‘신장이식 2,500례’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개원 이후 제2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신장이식 연수를 통해 향후, 일본의 성마리아병원이 후쿠오카 구루메 지역을 대표하는 신장이식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2015년 전국가톨릭간호대학생 연합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회장 홍현자 수녀)에서는 2015년도

‘전국가톨릭간호대학생 연합피정’을 7월 3일(금)에서 4일(토)까지 1박 2일로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진행하였다. 메르스가 진행 중이었으나 전국에서 가톨릭간호대학생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꿈을 먹는 젊음이’를 주제로 김동렬 안셀모 수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다.

### 제6차 간호영성세미나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8월 8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6차 간호영성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홍현자 회장의 인사와 영상 기도로 시작하여 강의는 ▲의료인의 영성(장광재 신부-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정호승 시인) ▲실천적 삶 안에서 의료인의 영성(신상현 수사)에 대해 감명 깊게 들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230여 명의 가톨릭간호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에 충분했던 강의였다. 또한 의료인으로 살아간다는 뿌듯함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은 깨닫게 되는 시간들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내년을 기약했다.